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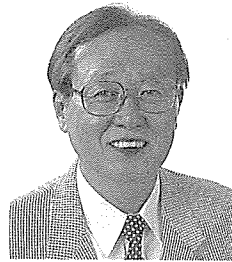
# 가난극복 이데올로기의 終焉

어떤 일을 이루려면 기반이 있어야하고 그 기반은 풍족할수록 좋다. 그러나 가난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때로는 성과를 올리게 할 수도 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나중에 성공할 수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힘들다. 그래서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사람은 그만큼 칭송을 받지만 그렇다고 가난을 미화까지 할 필요는 없다.

칠전팔기(七顛八起)의 도전과 고진감래(苦盡甘來)의 성공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서도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다. 다만 이 시대의 영웅은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라는 것이 좀 다를 뿐이다. 애플컴퓨터를 만든 스티브 잡스인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인지, 하버튼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차고에서부터 했다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는 모양이다. 그런데, 미국 주택의 차고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허름한 헛간 같은 것은 아니다. 차고도 차고 나름이겠지만 얼마든지 안락한 작업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장소다. 전기요금도 싸겠다. 냉난방 설비만 해 놓으면 그대로 좋은 작업장이 된다.

## 가난 美化를 교과서에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미국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켄터키주의 조그마한 마을 통나무집에서 태어난 링컨은 가난하지만 성품이 정직하고 공부도 부지런히 해서 변호사도 하고 대통령 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朴康文

(서울신문 과학정보부장)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가 왜 아시아의 한 끝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정교과서에 실려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링컨이 태어났던 시기라면 켄터키 농촌에서 통나무집이라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던 가옥형태였을 것이므로 이것이 가난의 상징은 될 수 없고 그의 집이 딴 집보다 더 가난했을 이유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나이 든 분치고 농촌 출신이라면 초가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이 드물 것이다. 초가집이 우리 농촌의 일반적인 가옥 형태였으므로 초가집에 산다고 해서 다 가난한 것은 아니었다.

국민학교 교과서에는 에디슨 이야기 도 있었다. 에디슨은 어릴 때 열차 안

에서 신문을 팔았다. 어려움을 이기고 자기 앞길을 펴 나가는 소년의 이야기로서 우리들에게 각인되었다. 그러나, 에디슨은 그 나이에 스스로 신문을 만들만한 공간을 열차 한 구석에 확보하고 작은 규모일지라도 인쇄기도 갖추고 있었다. 에디슨은 천부적인 발명가였지만, 경영 수완도 훌륭했다. 이미 청년기에 회사를 여러 개 거느리는 엄청난 갑부가 되었으며 만년을 상류사회 명사로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계 거물들과 함께 놀면서 지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생각해 보면, 가난을 딛고 일어나게 하기 위해 '가난미화(美化)' 까지도 하던 '가난극복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지배해 왔고 또 그 영향이 계속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아무래도 너무 많은 가난미화와 가난극복에 관한 교과서로 공부해 온 성싶다.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이야기에서도, 그가 어려운 가운데 시집 못간 딸과 함께 판각작업을 했으나 시대에 앞선 선각 때문에 오히려 국가기관의 핍박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배웠다.

오늘날 일부 논자들은 이 점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판목을 구하고 지도를 새기는 작업은 돈이 없으려면 할 수 없다. 김정호 자신이 돈이 있거나 누군가의 후원이 있었어야 한다. 그가 가난했다는 기록도, 관재(官災)를 입었다는 기록도 없다고 한다.

빌 게이츠만 해도 두뇌와 적수공권(赤手空拳)만으로 오늘의 그가 된 것은 아니었다. 유명인사들에 줄을 딸 만한 사교력이 있고 재력도 있는 그의 어머니가 음으로 양으로 뒤를 받쳐 주었다.

### 좋은 연구, 기반 튼튼해야

어떤 일을 이루려면 기반이 있어야 하고 그 기반은 풍족할수록 좋다. 가난이 결코 좋은 기반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난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때로 성과를 올리게 할 수 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나중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사람을 더욱 칭송한다. 그러나 가난을 미화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좋은 연구 결과를 내려면 그럴만한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가난극복 이데올로기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60년대에 들어서서 ‘잘 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 노래부르며 더욱 매진해 어지간히 가난에서 벗어났다. 부분적으로는 ‘소비가 미덕인 사회’도 이룩했다. 빛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늘지는 부분도 있다. 가난극복 이데올로기의 성과에서도 마찬가지다.

요즘 호화로운 혼수(婚需) 때문에 말이 많다. 세상이 잘못돼도 한참 잘 못되었다. 있는 사람들 층에 한정되

지 않고, 어려운 층에도 강요되는 악습이다. 합값 10만원 제대로 못 주는 것을 비판한 신부 어머니가 자살한 일도 보았다.

요즘 자녀를 여의는 부모라면 나하고 비슷한 50대나 60대의 나이이므로 새 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교육받은 세대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교육이념은 교육법에만 있을 뿐이고 이 세대에 실제로 큰 영향을 준 것은 가난극복 이데올로기가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가난극복 이데올로기는 한 뱃속에서 경제 발전과 함께 배금주의(拜金主義)를 키워서 낳았다. 배금주의는 우리 사회를 안개처럼 덮고 있는 것 같다. 국사를 맡은 사람들까지 돈 먹었다는 죄목으로 줄줄이 묶여 들어가는 것을 번번히 본다. 이 분들도 대개 50대에서 60대에 걸치는 연령대다. 그러면 그 밑층은 누가. 여러모로 들여보면 더 하면 더 하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한다. 더 타산적이고 더 이악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배금주의는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라는 정신적 병증을 불러왔다. 화랑 사다함이 지키던 신라의 국고에서 곡식을 훔쳐낸 것은 배고픈 이들이었지만, 요즘 도둑질의 대부분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다. 남이 누리만큼 누리려, 남보다 더 누리려, 훔치거나 빼앗는다.

### ‘가난한 부자’ 탈퇴해야

누구나 불만이고 만족한 사람을 찾기 힘들다. 가진 사람도 더 가져야 하니 늘 허기를 떨치지 못하는 ‘가난한 부자’를 면치 못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신의 공황기가 아닌가 싶다.

옛 선비가 나물 먹고 물 마시고도

냉물에 앉아 공부하던 것은 단순한 호학(好學)이라서일 수도 있지만, ‘책 속에 엄청난 재물이 있다’(書中萬鍾祿)는 꼬드김 때문일 수도 있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면, 일순에 신세가 퍼지는 것이다. 학문의 길에도 일찌감치 영화(榮華)의 유혹이 있어 온 셈이다. 우리나라 학계에 나도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도 인간세상인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하는 것은 학자들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다. 그 세계에 존경할 만한 스승도 여러 분 계시기 때문이다.

끝없는 신분상승 욕구와 새로운 권위주의도 가난극복 이데올로기를 거름으로 하여 자랐다. 정치는 그런 대로 어쨌든 탈권위주의 방향으로 가는 듯한데, 사회 각 분야는 오히려 위계(位階)를 따지는 권위주의가 더 심해졌다. 교회 목사면 다같은 목사로 통하는 줄 알았는데 당회장이란 제도가 언젠가부터 생겼다. 계열회사를 거느리는 재벌 총수를 사장과 구별하여 회장이라 하더니 총회장이란 명칭도 있다. 대학 홍보담당부서에서 신문에 내달라고 대학 인사(人事)내용을 보내오는 것도 전에 보지 못하던 풍습이다. 대학사회도 이젠 사다리 타기가 관청이나 회사하고 비슷해졌나 보다. 교수들이 나이들어 보직 하나 얻지 못하면 섭섭해 하는 것을 알 만하다.

우리는 이제 가난극복 교과서 읽기를 끝내고 안분(安分)과 안분(按分)의 교과서를 읽어야 할 때인 것 같다. 본수를 지키고 욕망을 줄이거란 너나없이 어려운 일이다. 과부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선뜻 학교에 내놓는다. 이런 일이 그 교과서의 한 단원(單元)이다. ㉟